

3차시

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

디지털 사회의 시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고, 타인을 존중하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.

Q1

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이 해야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다음 중 무엇일까요?

- ①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
- ②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적 정보들을 확인하여 널리 알리기
- ③ 다른 사람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SNS 공유를 통해 널리 알리기
- ④ 온라인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외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

A1 ②

설명 : 종종 연예 뉴스 등에서 연예인의 사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 정보들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입니다. 또한 해당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널리 퍼지면 전파성과 정보 지속성 때문에 당사자가 괴로움을 오래 경험할 수 있습니다.

Q2

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할 때,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옳을까요?

“인터넷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.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 내가 원하는 곳에 올리거나, 친구 사진이 웃기게 나왔을 때 다른 게시판에 퍼가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야?”

A2 X

설명 :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하고,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특히 인터넷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와 달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,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시민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입니다.

Q3

평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챙겨보고 있습니다. 어느 날 유튜버가 시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. 시민과 대화한다면서 지나가는 아무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. 마침 지나가는 시민이 그냥 손을 저으면서 지나가니, 유튜버가 외모를 비하하며 인터뷰도 안 해준다고 비난합니다. 이럴 경우, 해당 댓글에 같은 생각이라고 써도 되는 걸까요?

A3 X

설명 : 인터넷에서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동조되기 쉽습니다. 자신이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마음 편하게 동조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비하하는 말에 동의를 표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. 동의를 표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비하가 정당화되고, 타인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.